



박소현의 섹.시.토크

점심약속에 30분이나 늦은 친구S, 그녀는 식당에 들어서면서 이미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 늦은 게 미안해 뛰어왔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식탁을 두드리며 '주목!'을 외쳤다. "내가 방금 누구 만나고 온 줄 알아?" "옛날 애인이라고 만났어?" "표정을 보니 딱 옛날 애인 만난 얼굴이네."

있었다. "어떡하긴, 구경했지." 처음에는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 놀람은 2, 3초도 가지 않았다고 한다. 남자의 코트 안에 숨겨져 있는 볼품없는 '물건'에 시선이 닿자, 그냥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남자의 물건은 평소와 남편이 험한 상태일 때의 그것과 그리 다르지 않아 보였다. "내가 보면서 키득거리니까 이 남자가 오히려



당황하는 거야. 갑자기 웃을 여미더니 밥다 도망가더라." S의 말에 결혼 연차가 오래된 친구는 깊은 동조를 보였고, 아직 연차가 덜 된 친구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너 완전 내공 백 단 아줌마 같아. 어떻게 그걸 보고 웃음이 나오니?" "요즘 남편 것도 구경하기가 힘든 판국에, 낯

선 남자가 보여주겠다는데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잖아?" S의 너스레에는 두 손, 두 발을 들 수밖에 없었다. 그 남자의 그것이 그리 불만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다지 놀랍거나 수치스럽고, 혹은 끔찍한 느낌은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고 시절, 바바리맨이 학교 앞에 나타나면 학

"그걸 보고 웃음이 나데" "남편것도 보기 힘든데 굳이 마다할 필요 없잖아" 역시 아줌마들에 그것은 소품일뿐

교 앞은 순식간에 괴성으로 가득 찼다. 그런데 정작 남자의 물건을 제대로 본 아이들은 하나도 없었다. 아이들이 본 것은 그저 남자의 얼굴 혹은 가슴, 혹은 앙상한 무릎 부근에 불과했다. 어느 누구도 남자의 물건을 직접 볼 만한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남자가 코트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는 사실만 정황상 인식하고 있을 뿐이었다.

아줌마, 바바리 맨을 만나다

그 옛날 노출증 환자가 즐긴 것은 소녀들의 시선이라기보다는 소녀들의 괴성이었던 것 같다. 소녀들이 정말 눈을 똑바로 뜨고 남자의 물건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웃을 열어젖힐 수 있었을까? "자꾸 보다 보면,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아 보이게 마련이야." "그때 뭐 하러 그렇게 무서워 했나 몰라. 우리는 단채였고 그들은 혼자였는데." "나도 지금 보면 아주 자세히 쳐다볼 자신이 있는데." 옛날엔 품에도 보기 싫을 만큼 끔찍했던 대상이 이제는 추억의 소품으로 등장할 정도이니, 이것은 세월의 힘일까, 아니면 아줌마의 힘일까? "바바리 맨들, 여학교 말고 아줌마들 많이 모이는 노래교실 같은 곳이나 좀 나타나지. 그럼 우리가 열렬히 환호해 줄 텐데 말이야." "그러지 말고 아까 나타났다는 그 학교 앞으로 원정 나가볼까?" "그래, 아예 도시락 싸갖고 가서 아침부터 기다리지 뭐." 바바리 맨의 기억을 떠올리던 그녀들은 이제 아예 바바리 맨을 찾아 나설 기세를 보였다. 바바리 맨이 무슨 첫사랑 교생선생도 아니건만, 역시 아줌마들은 무서운 존재들이다. <연예 칼럼니스트>

검색절정 키워드

'폭행당했다', '웃기지 스킨 적 없다' 여기서 폭행설에 휩싸인 송일국(사진)이 이번주 인터넷 세상을 뜨겁게 달구었다. 지난 24일 여성월간지 프리랜서 여기자가 송일국을 폭행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송일국은 29일 "배우의 생명을 걸고 타협하지 않겠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결국 지난날 31일 송일국 측이 여기

'우생순' 핸드볼 태극남매 손잡고 베이징행

자와 처음 폭행설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각각 5억원과 15억원 등 총 20억원의 민사소송을 접수하면서 사건은 절정에 이르고 있다. 송일국은 승소하면 20억원 전액을 태안에 기부하겠다고 밝혀 다시 한번 인터넷에 이틀이 오르내리고 있다. 네티즌은 "맛있다.패러지않았다? 누구말이 맞나...", "사건의 진상은 두 사

람 알겠죠.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잘못했네 따지지 말고 결과를 지켜봅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핸드볼 중계'도 인기 검색어로 떠올랐다. 지난 달 29, 30일 일본에서 열린 일본 핸드볼 대표팀과 '태극남매'의 베이징 올림픽 예선 재경기가 생중계되면서 국민들의 응원 열기가 뜨거웠다. 편파판정과 아시아핸드볼연맹(AHF)의 재경기



Go board game diagram showing a game in progress with numbered stones and a large black stone at the bottom.

Go board game analysis section titled '제5회 KBC사장배' with diagrams and text explaining a specific move.

Baduk (Go) news section titled '바둑소식' with text about a 9-dan player's performance.

Horoscope section titled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with daily forecasts for various zodiac signs.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Band) with a photo of a family.

English learning section '굿모닝 잉글리쉬 <1089>' with a dialogue about buying a car.

Japanese learning section '오하오우 니혼고 <1089>' with a dialogue about a restaurant.

Chinese learning section '니하오 쑹구위 <66>' with a dialogue about moving.

Chinese learning section '한자 이야기 <676>' with a lesson on the character '心' (heart).